

100년 청파교회의 두 뿌리(교회 설립연대에 관하여)

목 차

1. 그 간의 청파교회의 역사에 대하여
 - 가. 용산교회를 청파교회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
 - 나. 연화봉교회를 청파교회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
2. 연화봉교회를 청파교회 역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
3. 청파교회의 또한 뿌리를 연화봉교회로 정함
4. 청파교회의 발전과정
 - 가. 연화봉교회
 - 나. 용산교회
 - 1) 설립자 2) 최초의 목회자 3) 교회 부지 4) 설립일
 - 다. 두 교회가 합한 시기와 청엽정교회로의 명칭 변경시기
 - 라. 두 교회의 합병에 대한 내용과 소견
 - 1) 용산교회가 연화봉교회를 흡수 합병하였다는 주장
 - 2) 연화봉교회와 용산교회가 대등하게 합병하였음
 - 가) 합병할 여건의 형성
 - 나) 두 교회가 대등하게 합병되었다는 견해
 - 3) 연화봉교회가 바로 청엽정(청파)교회라 하는 것도 적합치 않다고 봄
5. 예배처소의 이전에 관하여
 - 가. 연화봉교회의 예배처소(1913-1937년 하반기)
 - 나. 용산교회와 그 후 청엽정교회의 예배처소(1929-1946.4)
 - 다. 청엽정교회와 청파교회의 예배처소(1946.4-1956.10)
 - 라. 청파교회의 예배처소(1956.10-현재)
6. 맺는 말
7. 청파교회 예배처소(1913-현재) 지적도

100년 청파교회의 두 뿌리(교회 설립연대에 관하여)

청파교회는 1908년 상동교회가 개척한 연화봉교회와, 1929년 이전에 중앙전도관 부관장 원익상 목사와 김세라(김인영 목사의 자친)부인이 설립한 용산교회가, 1937년 하반기에 용산교회 예배당으로 합치면서 당시 행정구역의 이름인 청엽정교회로, 일제로부터 해방 후 1947년 이후부터 청파교회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 그 간의 청파교회의 역사에 대하여

가. 용산교회를 청파교회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

2004년까지는, 청파교회의 시작을 남감리회 소속 원익상 목사(경성중앙전도관 총무)를 중심으로 한 경성중앙전도관의 전도활동의 결실로, 1929년 4월 24일 용산구 청엽정 2정목 71-15번지 24명의 교회 부지를 구입하고, 1929년 5월 1일 용산구 청엽정 2정목 신회군 속장의 집을 예배처로 삼고 처음 예배를 드리므로 용산교회가 설립되어 청엽정교회, 청파교회로 이름이 바뀌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1) *2) *** 연화봉교회의 역사를 청파교회의 한 뿌리로 보지 않는 견해 ***

나. 연화봉교회를 청파교회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

(청파교회를 연화봉교회와 용산교회의 합쳐진 교회로 보는 견해)

용산교회의 설립일인 1929년 5월 1일을 청파교회 설립일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1908년에 설립된 연화봉교회와 연결하여 보는 견해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 예로

1) 상동교회 90년사에 의하면 상동교회가 “1908년에 지금의 용산구 서계동 산언덕에 우리교회가 세운 연화봉교회도 …………… 그러다가 30년 후인 1938년에 이웃 청파동에 있는 청파감리교회와 합동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라 하였고,

2) 마포중앙교회 80년사에 의하면 마포중앙교회<당시 이름 사촌리교회>를 개척한 연화봉교회를 설명하는 가운데 여러모로 형편이 어려워 1939년에 청파감리교회와 합병하였다. *4)

3) 푸른언덕 창간호(1998년 여름)에서 교회사학자 조이제 목사는 청파교회 50년사를 보면서 “… 1938년에 이웃에 있던 연화봉교회와 합동하여 청엽정교회로 발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기록이 저를 좀 당황하

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은 다른 기록들을 보면서 선교 초기에 이미 지역에서 선교활동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두 교회가 합해졌으면 당연히 그 다른 뿌리가 함께 다루어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터라도 다른 한쪽을 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겠습니다. *5)…라고

4) 푸른언덕 제 9호(2002년 여름)에서 조이제 목사는 … 그러다가 남감리회와 북(미)감리회가 1930년에 합해지면서 ‘기독교 조선감리회’가 형성되었고, 그 결과 용산교회와 연화봉교회가 같은 구역으로 묶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교회는 따로 있다가 1938년 무렵에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6)…

5) 우리 교회 장혜숙 권사가 인터넷에 올라 있는 기사를 따온받아 “잃어버린(모르고 있는 잊고있는) 역사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2001년 가을 교회 홈페이지 친교실에 4회(352, 353, 354, 355번)에 걸쳐 올렸고, 그 외에도 청파교회와 연화봉교회를 연관시켜 언급한데가 더러 있습니다.

2. 연화봉교회를 청파교회 역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

2004년 가을 기획위원회에서 연화봉교회를 우리 교회의 또 하나의 뿌리로 볼 수 있는가 조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11월-12월 월여 간 이에 관한 많은 양의 사료 *7) 등을 수집 조사하였고, 새롭게 교회 역사를 다루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김기석 담임목사 명의로 교회사관계 전문기관인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장과 감리교신학대학교 역사자료관장에게 그 간 수집한 사료를 보내며 소견을 요청했고, 2005년 1월 중순 양 기관으로부터 “연화봉교회와 용산교회가 대등한 관계로 합쳐지고 1937년 하반기에 청엽정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므로 교회설립연월일은 먼저 세워진 연화봉교회 설립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본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8) *9)

3. 청파교회의 또한 뿌리를 연화봉교회로 정 함

그 간 조사한 사료 *7)와 상기 두 기독교 역사연구소 전문가의 소견 *8) *9)을 가지고 2005년 3월 기획위원회와 임원회에서 연화봉교회 설립일을 기준으로 1908년을 우리 교회 설립일로 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4. 청파교회의 발전과정

청파교회는 연화봉교회(1908년 설립)라는 한 뿌리와 용산교회(1929년 이전 설립)라는 또 한 뿌리가 합병하며 청엽정교회(1937년 하반기)로, 해방 후 행정구역의 명칭이 정(町)에서 동(洞)으로 바뀐 후 청파교회로 이름을 바꾸

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 연화봉교회

전덕기약사와 기타 자료에 의하면 연화봉교회는 연화봉지역(지금의 청파동)에 1908년 미(북)감리회 소속 상동교회에서 지교회로 개척하였다. *10) *11) *12) 고 합니다.

초창기의 교회상황은

1) 연화봉교회 개척자 중에 한사람인 양우로덕은 1908년부터 연화봉여학교를 시작하였고 *13),

2) 또 이필주(**후에 목사**)가 ... 1907년 봄 청파동에 기도처를 마련, 교회로 발전시켰고 그 해 4월에 전도사 직첩을 받았다. *14)라고

3) 1909년 6월 제 2회 연회에서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의 보고 가운데 “연화봉교회는 교인이 50-60명이고 회당은 최경서씨가 방금 예비하오며 또 전도인 1인을 보내면 월급 10환식 보조하기로 작정되었사오니 전도인 1인을 보내 주시기를 바라오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5).

4) 기록상으로는 1913년 2월 19일 인천의 지방회에서 파송된 리홍석 전도사가 연화봉교회 최초의 목회자였고 *16)

5) 1913년에는 흥왕하여 교우가 200-300명이나 되고, 사촌리(지금의 마포중앙감리교회)와 갈월리에 지교회를 설립하였고 *11)

6) 1913년에 많은 교우가 교회건축헌금을 하였고 *11), 동년 7월 15일에는 교회부지로 용산구 청엽정 1정목 71-1호(현 교회 예배당으로부터 서울역쪽으로 약 800m 간 연화봉지역)의 대지 119평을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 명의로 구입하였으며 *17),

7) 조선예수교감리회 제 6회 연회에서 시크란돈 대부인 기념예배당을 연화봉교회에 건축키로 의론하자고 순서위원회에 위탁하기로 가결하고 *18)

*** 그 후 교회를 어떻게 건축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습니다 ***

나. 용산교회

1) 설립자

용산교회는 1929년 이전(1927-8년으로 추정)에 미남감리회 중앙전도관의 전도로, 특히 김세라(김인영 목사의 자친)부인과 원익상 목사가 협력 전도하여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19) 이는 1930년 9월 24일 남감리회 제13회 연회에서 중앙전도관 관장 김인영 목사, 부관장 원익상 목사의 중앙전도관상황보고 내용 입니다.

** 따라서 설립자를 원익상 목사 *20), 또는 김인영 목사 *(21)라는 기록은 맞지 않음 **

2) 최초의 목회자

용산교회의 최초의 목회자는 1929년 9월 남감리회 12회 연회에서 석교주재소와 용산으로 임명된 박연서목사와 엄재희목사로 추정합니다. *22)

** 1926부터 1928년까지의 남감리회 연회록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

3) 교회부지

교회부지는 용산구 청엽정 2정목 71-15호 대지 24평(숙명여자전문 학교 올라가는 길 우측 중간 지점)을 1929년 4월 24일에 구입하고 *23) 그 다음 해 건축한 것 같고,

4) 설립일

신회균 속장의 집을 예배처로 삼은 1929년 5월 1일은 1969년 감리교사진연감에 명기되어 있을 뿐 확실하지 않고 *24), 1929. 4. 26 교회 부지를 구입했고, 교역자를 1929년 9월 남감리회 제 12회 연회에서 임명한 것으로 보아 1929년 보다는 1-2년 앞서 설립되었다고 추정됩니다.

다. 두 교회가 합한 시기와 청엽정교회로의 명칭 변경 시기

청엽정교회로의 명칭 변경은 1937년 하반기(1937. 4월 - 12월 사이)에 했고, 연화봉교회와 용산교회의 실질적인 합병은 이보다 좀 앞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1937년 4월 제6회 기독교조선감리회 중부연회 때까지, 연화봉구역(2교회) 담임자로 이하영 목사를 임명하였는데 *25), 1937년 12월 29-30일 경성남지방회에서 박현옥을 청엽정교회 전도부인으로 임명하였다(** 박현옥이 1935년 11월에는 한강과 연화봉 구역의 전도부인이 었슴 **)는 조선감리회보 기사 *26)로 보아 1937년 하반기에 두 교회가 합병하고, 교회 이름을 당시 행정구역의 명칭인 청엽정교회로 변경한 것으로 봅니다.

라. 두 교회의 합병에 대한 내용과 소견

1) 용산교회가 연화봉교회를 흡수 합병하였다는 주장

*** 청파교회 50년사에서 (1) 용산교회와 연화봉교회가 합한 시기를 “...(연화봉교회는)…… 자립교회로서 유지할 수 없게 되어 1938년 우리교회와 합하게 되었다. 그러나 연화봉학교만은 그 후 몇 년을 더 유지하였다.*27).

(2) 청엽정교회(용산교회를)로 개칭한 시기는 1939년이 확실시 된다고 *28) 하였음.

*** 여기서 유의할 점은 용산교회와 연화봉교회의 합병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많은 자료

들(상동교회 90년사, 100년사, 마포중앙교회 80년사, 기독교 대백과사전, 그 외 각종 기고문 등)은 청파교회 50년사를 참고한 듯 대부분 청파교회(사실은 연화봉교회인데)와 용산교회의 합병이라는 표현과 합병일을 1938년 또는 1939년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연화봉교회와 용산교회가 대등하게 합병하였음

가) 합병할 여건 형성

(1) 1930년에 미(북)감리회와 남감리회가 합쳐졌고

(2) 두 교회의 거리가 500m도 안되고

(3) 연화봉교회가 설립당시에는 번창하였으나, 1928년 기독교신문 등에 보면 많이 위축되었고 *29)

(4) 용산교회도 설립하여 얼마 안되는 작은 교회로 미약하여 자립하기 힘들었고 *30)

(5) 용산교회가 설립된 초창기인 1929년부터 1932년까지는 두 교회 담임자를 각각 임명하였으나, 이미 1933년부터는 연화봉구역 담임자가 두 교회를 담임하였고 *31)

(6) 자연 두 교회의 모임을 한 장소에서 갖게 되었을 것이고,

(7) 1934년 연화봉교회가 1913년 3월 최초 구입한 교회 부지 119평(건물 내용은 모름) *17)을 팔고, 같은 해 11월에 약 20m 떨어진 곳에 97평(건물구조는 모르나 25평)을 구입하였는데(매매이유는 모름) *32) *33)

(8) 용산교회는 숙명여자전문학교(지금의 숙명여자대학교)에 올라가는 도로변에 1930년경에 새로 지은 예배당(부지 24평<건물 30평> *23 *33)이 있었고

(9)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용산교회의 예배당을 두 교회의 합한 예배처로 정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나) 두 교회가 대등하게 합병되었다는 견해

합병 내용에 대하여는 청파 50년사에서는 “...(연화봉교회는)..... 자립교회로서 유지할 수 없게 되어 1938년 우리교회와 합하게 되었다.”라고 하여 연화봉교회를 흡수하고 그 뿌리를 단절하였는데 교회 건물을 용산교회 예배당으로 함께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 이외에 연화봉교회가 오히려 형편이 나았다고 보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최소한 대등한 관계 였다고 봅니다.

(1) 첫째. 1938년 연화봉교회의 재산이 용산교회 보다 더 많았고, 그리고 1949년까지 연화봉교회의 재산을 청파교회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33) *34)

용산교회 대지 24평 720원 건물 30평 800원 예배당

연화봉교회 대지 97평 2,910원 건물 25평 900원 구예배당

(2) 합병 당시 장로도 용산교회가 최봉운 신회균 2명인데 비해, 연화봉교회 출신은 양우로덕 최도익 정태응 리희곤 최덕준 5명입니다.*35)

(3) 중부연회 평신도 대표에 1934년과 1937년에는 정태응 장로, 1939년에는 최덕준 장로 (이상 연화봉교회 출신)가 출석하였고 *36)

(4) 1936년 12월말 현재, 엠윗 청년회원수가 연화봉. 용산교회 공히 10명이라는 기사도 있음 *37)

(5) 1937년 선교사업 등을 위한 1원회원 모집에 경성남연화봉교회에서 10명이 가입하였는데, 이 중 리하영은 구역 담임목사이고 용산교회 출신은 최봉운 장로 한 사람이며, 양우로덕. 최덕준. 정태응. 리희곤. 고응국 5명은 연화봉 출신으로 보며, 강준의. 김요한 김석만 3명은 어디 출신인지 모름 *38)

3) 연화봉교회가 바로 청엽정(청파)교회라 하는 것도 적합지 않다고 봄
서울연회사 I 에서 “이 부흥회에 인근 연화봉(청엽정) 교인들도 참석하였던 바 은혜받은 청년들에 의해 연화봉(*청엽정일 것임*)교회에도 부흥이 일어났다.<감리회보>의 보도다.” *39)라고 청엽정교회와 연화봉교회를 바로 동일시 하는 기술을 보며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책의 여러 곳에서 연화봉교회와 용산교회를 따로 혹은 함께 다루고 있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용산교회만이 청엽정교회(청파교회 50년사)라고 할 수 없듯이, 연화봉교회만이 청엽정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보며, 연화봉교회 + 용산교회 = 청엽정교회 → 청파교회 라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5. 예배처소의 이전에 관하여

가. 연화봉교회의 예배처소(1913 - 1937 하반기)

1908년 설립된 연화봉교회의 설립당시의 최초의 예배처소는 최경서씨가 마련한 연화봉 구역(지금의 청파동 1가 근처)일 것이나 알 수는 없고, 1913년 7월 15일 청엽정 1정목 71-1호의 대지 119평을 상동교회 담임목사 전덕기의 이름으로 구입하여 교회를 짓고(크기는 모름) 예배를 드리다가 1934년 3월 12일 매각하고 같은 해 11월 15일 약 20m 떨어진 청엽정 1정목 62-22호의 97평의대지와 건물 25평을 구입하여, 1937년 하반기 용산교회와 합치고 용산교회의 예배당으로 옮길 때까지 사용하였으며, 1949년까지 청파교회(청엽정교회)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나. 용산교회와 그 후 청엽정교회의 예배처소 (1929 - 1946. 4)

용산교회는 1925년 9월부터 시작된 중앙전도관의 전도로 청엽정 2정목 신회균 속장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므로 시작되었고, 1929년 4월 24일 청엽정 2정목 71-15의 대지 24평을 구입하고 30평의 교회건물을 지어 예배를 드리다가, 1937년 하반기 이웃 연화봉교회와 합치면서 교회 이름을 청엽정교회로 바꿔 사용하다가, 1946년 4월 청엽정 2정목 100번지로 이전할 때까지 사용하였고, 그 후는 담임목사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1956년 7월 9일 매각하였습니다.

다. 청엽정교회와 청과교회의 예배처소 (1946. 4 - 1956. 10)
청엽정 2정목 교회가 협소하던 중, 그 근처 300m정도 되는 곳에 있는 2차 세계대전시 포로수용소였던 청엽정 3정목 100번지의 4층 건물(지금의 신광여자고등학교 *40)을 불하받아 1946년 4월에 그 4층으로 예배처를 옮겼고, 넓은 장소로 옮긴 후 교세도 많이 신장되었다. 일제에서 해방된 후,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청엽정이 청과동이 되었고, 교회 이름도 청엽정교회에서 청과교회로 바꾸어, 1956년 10월까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 청과교회의 예배처소 (1956. 10. --- 현재)
1955년, 바로 이웃에 청과동 3가 85-5호 대지 272평을 매입하고 그 이듬해 1956년 10월 83.97평의 성전을 준공하고, 그 후 또 성전이 협소하여 헐고 크게 건축하기로 결정하여 연건평 392.40평의 성전을 1979년 2월 1일에 공사를 착공하고 1980년 3월 30일에 입당예배를 드리므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6. 맺는 말

남대문에서 서울역을 보며 왼쪽 기차길 건너 약 오리쯤 되는 곳에 연화봉이 보였을 것입니다. 100년전 미북감리회 소속 상동교회 청년들이 이곳에 한가지로 나라를 잃어가는 희망없는 가난한 형제들에게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여 1908년 연화봉교회를 세웠습니다.

79년전 1929년에 4년전부터 시작된 미남감리회 소속 중앙전도관의 열성어린 전도로 연화봉교회로부터 500m정도 떨어진 숙명여자대학교 올라가는 길가에 용산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해인 1930년에, 따로 따로 우리나라에 선교하였던 미(북)감리회와 미남감리회가 우리나라에서 먼저 합쳐졌고, 71년전인 1937년 하반기에 연화봉교회와 용산교회가 합쳐지며 용산교회 예배당을 예배처로 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제에서 해방된 후 1946년 4월, 지금부터 62년전 용산교회로부터 또 300m정도 떨어진 지금의 신광여자고등학교 건물 4층으로 옮겼다가, 10년

후인 1956년에 인접한 이곳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연화봉교회가 처음 개척된 지역은 이곳으로부터 800m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 예배처를 세 번 옮기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교회역사를 더듬어보면서, 교회가 세 번이나 옮기고, 일제가 말기에 전쟁열기에 힘을 쏟으며 기독교를 핍박하였고, 6·25전쟁으로 많은 사료들이 소실되어서, 100년전부터의 교회사료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27년전인 1981년에, 1929년에 시작된 용산교회만을 청파교회의 뿌리로 하여 청파교회 50년사를 만드신 박정오 목사님과 조기원 장로님은, 1984년 기독교 전래 100주년을 기해 감리교 교단에서 수집 편찬한 사료집들이 발간되기 전이라 옛날 기록들을 접하기가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분들이 1929년 용산교회를 청파교회의 시작으로 한 것은, 아마도

1. 1969년판 기독교대한감리회 사진연감 *2)에 청파교회 설립일이 1929년 5월 1일로 명기되어 있어, 따라서 이 벽을 넘을 수 없었다는 점
2. 수년전부터 시작된 성전건축(처음은 교육관)을 교회설립 50주년에 한다는 보람
3. 용산교회 예배당을 연화봉교회와 용산교회가 합친 청엽정교회에서 계속 사용하였다는 점
4. 1984년 이전이므로 감리교 교단에서 수집 편찬한 사료(기록)들을 구할 수 없어,
5. 구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는데, 당시에 도 벌써 40-50년전 일이라 증인들이 별로 없었고, 용산교회의 입장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용산교회 출신 최봉운 장로와의 대담으로 많은 사료를 얻었다는 점
6. 특히 연화봉교회에 관한 사료들을 구하기 힘들었는데, 과장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품을 가진 분들이므로 확실하지 않은 연화봉교회까지로 소급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는 개인의 소견입니다.

청파교회 50년사를 집필하신 조기원 장로님(1986년 작고)이 당시는 과거 기록들을 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귀중한 역사를 기술할 수 있었던 것은 세심한 성품과 능력과 노력으로 만드신 것으로 높이 치하하며, 이 50년사의 기록이 100년전의 사료를 수집하는데 징검다리로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험이 없고 비전문가로 자료를 수집하느라 노력은 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10년전에만 사료수집을 시작했더라도 하고 아쉬워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연화봉교회)가 개척한 마포중앙교회(사촌리교회) 80년사 *41)를 보면서 1955년까지 우리 교회 성가대지휘자로 있던 효창교

회 고응호 장로가 연화봉교회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 분이 지금 살아 있었더라면 달려가 들을 내용이 많이 있을텐데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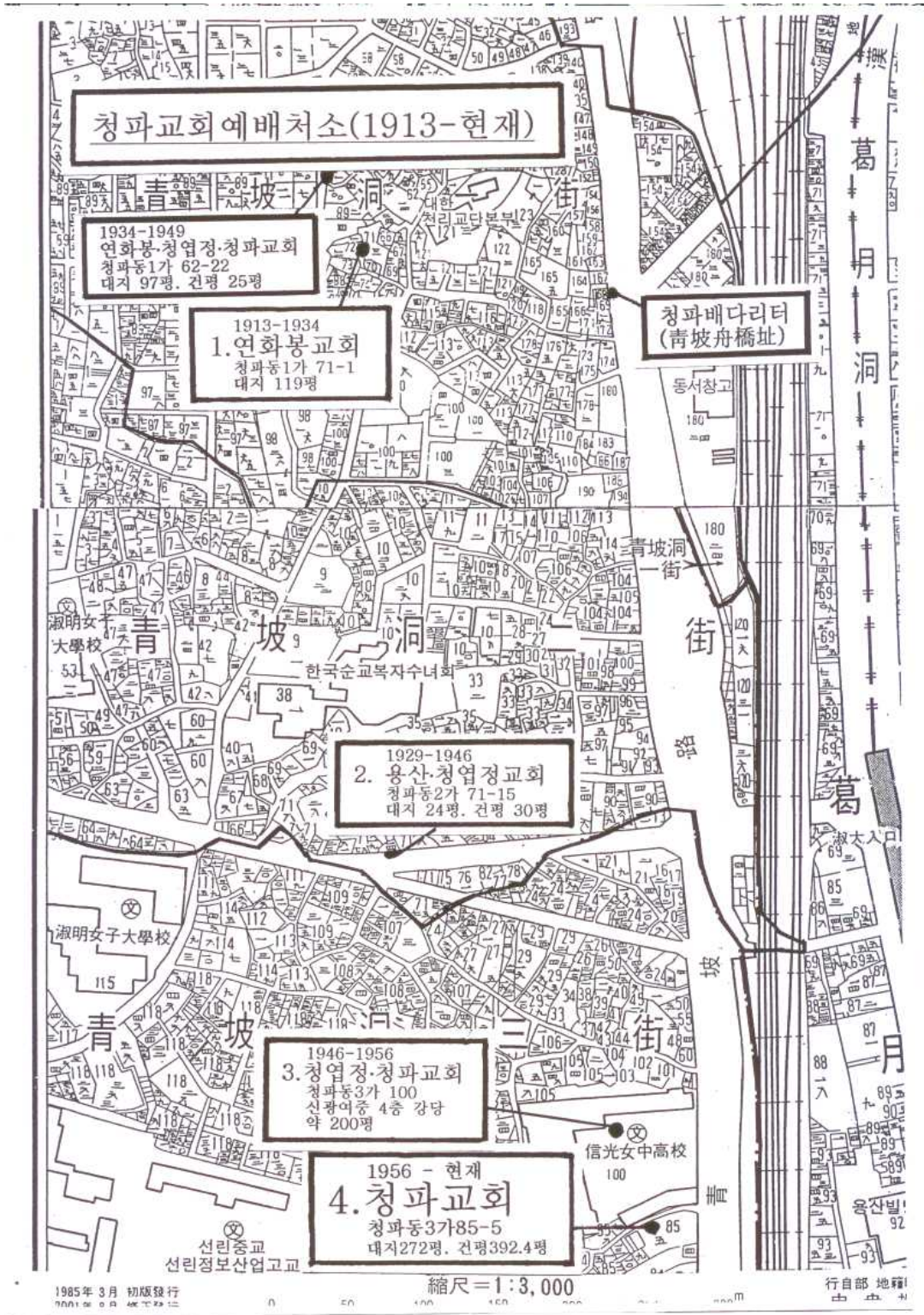
금년 가을에 출간될 청파교회 100년사에서 전문가시고 훌륭한 목사님이 소중한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기술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2005년, 지난 100년간의 사료를 수집한 후, 청파교회 50년사를 만드신 박정오 원로목사님에게 조병무 장로(고 조기원 장로님의 장남)와 함께 찾아가 “연화봉교회까지 소급하여 청파교회 역사로 봐야합니다”라고 하였더니, 평소 신뢰하여 주시던 박목사님은 “수고했어”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100년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 왔습니다. 그 중에도 1966년부터 31년간 교회의 기초를 다지며, 자립하며, 성전건축을 하도록 이끄신 박정오 목사님은 열린신앙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 좋은 것이야”라는 말씀을 우리 청파교인들의 가슴속 깊이 각인 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튼튼한 토대 위에, 1981년 전도사로 시작하여 우리 교회의 한 식구가 된 김기석 목사님은 군복무 등을 거친 후, 1990년 다시 교회에 부임하시어 교회설립 100주년을 맞아 다시 새로운 100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때 수년 전부터 “생명과 평화”라는 새로운 지향점을 이 시대의 우리 교회의 소명으로 제시하고, 우리들은 올바르게 사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로서 매일 매일 열심히 나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 청파교회 예배처소(1913 - 현재) 지적도 별첨
 (1908-1913년 까지는 최경서씨가 연화봉지역<청파동 1가>에 마련 ?)



- *1) 청파교회 50년사 15-16쪽<교회 설립자. 교회설립일>, 26-27쪽<교회 명칭 개칭한 시기>
- *2) 1969년판 기독교대한감리회 사진연감-청파교회 부분<교회설립일 부분>
- *3) 상동교회 90년사(1979년 12월 송길섭 집필) 77-78쪽.
- *4) 마포중앙교회 80년사(1992년 9월 20일 유관지 목사 집필) 46 - 47쪽.
- *5) 푸른언덕 창간호. 1998년 6월 28일 발행 99쪽 - 조이제 목사의 “교회와 역사” 기고문 중
- *6) 푸른언덕 9호. 2002년 여름 43쪽 -조이제 목사의 “청파교회 뿌리찾기” 기고문 중)
- *7) 청파교회 50년사, 상동교회 90년사, 감리교회 연회록, 기독교관계 간행물, 청파교회 소유재산 등 참고 사료 기타 등을 수집 조사하였음.
- *8)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연구실장 김승태 목사 회신 중요 부분.
 용산교회와 연화봉교회의 통합은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가. 통합시기는 1937. 7 - 1937. 12 사이이다.
 나. 통합하여 교회명칭을 그지역 지명을 따라 청엽정교회로 개칭했다.
 다. 양 교회의 재산과 교인은 모두 청엽정교회로 통합하고, 예배처소는 장소가 넓은 용산교회의 예배당을 사용하였다.
 라. 담임 교역자는 연화봉교회를 담임하던 이하영 목사가 통합된 청엽정교회 담임자로 계속 시무했다.
 마. 그러므로 현 청파교회는 청엽정교회의 후신이고, 청엽정교회는 연화봉교회와 용산교회가 통합한 교회이므로, 청파교회의 설립연월일은 먼저 설립된 연화봉교회의 설립연월일까지 올려잡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만열 연구소장은 국사편찬위원장을 겸하고 있고, 김승태 목사는 실무 책임자 임
- *9) 감리교신학대학교 역사자료관장 윤춘병 감독 회신 중요 부분.
 가. 1936년과 1937년 전반까지 용산교회와 연화봉교회가 각기 활동하였고, 1937. 12. 29-30일 경성남지방회에서 청엽정교회 전도부인에 박현옥을 임명한 것으로 보아, 1937년 하반기에 두 교회가 대등하게 합치면서 행정구역 이름인 청엽정교회로 바꾸고 다시 청파교회로 바꿨다고 봅니다.
 나. 합친 청엽정교회가 연화봉교회의 구예배당 부지를 1949년까지 보유하고 있던 점으로 미루어 대등한 합병으로 보입니다.
 다. 합병 후, 연화봉교회 교인의 상당수가 청엽정교회에 계속 출석하였던 점과
 라. 제 6회연회(1937. 4)에서 이하영 목사를 연화봉구역 담임으로 임명하였고, 제7회연회(1939. 5)에서 청엽정교회 담임으로 계속 임명한 것으로 보이며,
 마. 예배처를 청엽정교회가 용산교회 예배당을 계속 사용한 것 외에 두 교회 교인과 재산이 계승되고 연화봉구역 담임이었던 이하영 목사가 청엽정교회 담임으로 임명된 것으로 미루어 대등하게 통합되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며, 교회설립연월일은 먼저 세워진 연화봉교회 설립연월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윤춘병 감독은 감리교회백년사편찬위원장, 한국기독교고전간행회 감독등을 역임하고 한국감리교 교회성장사 등 다수 저술하신 교회사의 대가이며, 회신 때 89세 임
- *10) “牧師全德基畧史(목사전덕기약사)”에 상동교회에서 1908년에 지교회로 연화봉교회를 세웠다는 내용이며, 전덕기 목사 장례식 후 어느 추도모임에서 낭독된 것으로 추정

되며, 동 약사는 상동교회 역사자료실에 보관되어 있음.

- *11) 그리스도회보(1913. 6. 23 523쪽 “구하면 주시는 일” 기사
- *12) 미(북)감리회 7회 연회록 58-59 쪽 “고 전덕기 목사 추도문” 중
- *13) 1. *11)
2. 청파교회 50년사 33쪽에 “특히 양우로덕 장로는 연화봉교회 설립과 유지 운영에 이르기까지 크게 공헌하였다. …… 또한 사재를 희사하여 사립 연화봉학교를 설립 운영하기 20여년간,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전도에 힘썼다.” 라고
- *14) 1. 조선기독교문사 간행 1927 노블부인 편저 “승리의 생활” 30쪽 이필주의 “믿음으로 사는 생활” 중
2. 기독교문사편 기독교대백과사전 13권 96-97쪽 이필주
- *15) 조선예수교감리회연회 제 2회록(1909. 6. 23-29)
- *16) 1. 그리스도회보(1913. 3. 8. 402쪽) 전도사임명란
2. 조선예수교감리회연회 제 6회록 (1913. 6. 6-12) 15쪽
- *17) 1. 용산구청 소장 청파동 1가 71-1번지 토지대장
2. 청파동 1가 71-1은 현재 청파동 1가 71-3에 합지되었으며, 우리 교회에서 서울역 쪽으로 약 600m 쯤 가면 세계평화통일연합 본부앞에 서울특별시 제159호 청파배다리터(靑坡舟橋址=청파주교지) 지석이 있고, 그곳서 배다리길로 약 200m 쯤 올라가서 대한천리교단 본부 앞쪽 임
- *18) 조선예수교감리회연회 제 6회 연회록 (1913. 6. 6-13) 4쪽
- *19) 남감리교회조선매년회 제13회록(1930. 9. 24-30) 107쪽 중앙전도관상황보고 내용 중
- *20) 청파교회 50년사 15쪽
- *21) *2) 1969년판 기독교대한감리회 사진연감-청파교회 부분의 <교회설립자 부분>
- *22) 남감리교회조선매년회 제 12회록(1929. 9. 4-9) 41쪽
- *23) 1.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보관 청파교회 등기권리증 사본
2. 용산구청 소장 청파동 2가 71-15 번지 토지대장
- *24) 1. 청파교회 50년사 15-16쪽
2. *2)1969년판 기독교대한감리회 사진연감-청파교회 부분의 <교회설립연월일 부분>
- *25) 기독교조선감리회 중부연회 제6회(1937. 4. 7-13) 39쪽
- *26) 1. 감리회보 3권 72호(1938. 2. 1.) 318쪽
2. 감리회보 3권 36호(1936. 1. 10.) 12쪽 전도부인명부록 경성남지방 기사중
- *27) 청파교회 50년사 34쪽
- *28) 청파교회 50년사 26-27쪽
- *29) 1. 기독교신보 제647호(1928. 5. 2.) 교회순례…연화봉. 만리현. 도화동 3교회 기사 중
2. 청파교회 50년사 34쪽
- *30) 청파교회 50년사 20쪽
- *31) 1. 1929년도
가. 조선예수교감리회연회 제 22회(1929. 6) 회의록 36쪽 연화봉 김태현
나. 남감리교회조선매년회 제 12회(1929. 9) 회의록 41쪽 석교·용산 박연서 엄재희
2. 1930년도
가. 감리회보 134호(1931. 1. 19)14쪽 조선예수교감리회 제 23회(1930 -1931 파송기) 연화봉 이동욱(**국문 연회록은 남아있는 것이 없고, 감리회보 134호는

윤춘병 감독 개인 소장품이고, 영문연회록 229쪽에 기록되어 있음**)

나. 남감리교회조선매년회 제 13회(1930. 9) 회의록 51쪽 석교·용산 박연서 엄재희

3. 1931년도 : 기독교조선감리회 연합연회 제 1회(중부)(1931. 6.10-19) 52쪽 연화봉 : 이은택. 용산 : 김인영
4. 1932년도 : 기독교조선감리회 연합연회 제 2회(중부)(1932. 3.16-22) 55-56쪽 연화봉 : 이은택. 용산 : 홍애시더
5. 1933년도 : 기독교조선감리회 중부연회 제3회(1933. 3. 15-20) 40쪽 연화봉구역 이은택(연화봉,용산,만리현이 한 구역)
6. 1934년도 : 기독교조선감리회 중부연회 제4회(1934. 3. 13-19) 50쪽 연화봉구역

(2) 오화영

- *32) 용산구청 소장 청과동 1가 62-22 97평 토지대장
- *33) 1938년도 기독교조선감리회 유지재단 규칙 급 설명서(부 재산목록) 70-71쪽
- *34) 유지재단 보관 윤태현 전청과교회 담임목사의 1949년 12월 매도증명서 사본
- *35) 1. 청과교회 50년사 93쪽
2. *2) 1969년판 기독교대한감리회 사진연감-청과교회 부분의 <역대장로성명 부분>
- *36) 1. 기독교조선감리회 중부연회 제 4회(1934. 3. 13-19) 32쪽 정태응 성서공회
2. 기독교조선감리회 중부연회 제 6회(1937. 4. 7-13) 26쪽 정태응 성서공회
3. 기독교조선감리회 중부연회 제 7회(1939. 5. 3-10) 37쪽 최덕준 상업
4. 청과교회 50년사 33쪽
5. *2) 1969년판 기독교대한감리회 사진연감-청과교회 부분의 <역대장로성명 부분>
- *37) 감리회보 3권 55호(1937. 5. 1) 187쪽
- *38) 1원 전도회원 모집 (감리회보 3권 60호 <1937. 7. 16. 217쪽>)에 아래와 같이 성남연화봉교회 10명이 가입하였는데(**취지에 관한 내용은 감리회보 3권 47<1937. 1. 1.>에 있음**) 그 이름은
2269 강준의 2270 김요한 2271 최봉운 2272 김석만 2273 고응국 2274 최덕준 2275 리하영 2276 정태응 2277 양우로덕 2278 리희곤 등 이며
이중, 리하영은 연화봉구역 담임목사로, 1935년과 1937년 연회록 참조
최봉운은 용산교회 출신 이고,
양우로덕. 최덕준. 정태응. 리희곤은 연화봉교회 출신이며 이상 청과교회 50년사 93, 33쪽 참조
고응국은 연화봉교회 출신 고응호 장로 *41)의 따님 고현경씨가 자기 큰아버지라는 것으로 미루어 연화봉교회 출신으로 추정 함(구명자 권사에게 들음)
그 외 3명 강준의. 김요한. 김석만은 어느 교회 출신인지 모름.
- *39) 서울연회사 I (2007. 4. 9.발행, 발행인 윤연수, 집필자 이덕주) 547쪽. 이곳에 인용한 감리회보 3권 75호(1938. 4. 1.) 343쪽의 기사 내용은 “ 청엽정교우들도 참여하는 중 몇 청년은 부흥회 후 자기교회에 가서 기도중 주정군이 들어와서 야료를 하나 아무 대꾸도 아니하고 도리어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그도 감화가 되어 회개하고 믿게 되었다.” 라고 “연화봉” 이라는 단어는 나오지가 않음.
- *40) 가. 청과교회 50년사에 의하면 이 건물을 교회와 학교를 경영하겠다고 하여 ... 임대 계약을 맺게 되었다.(39쪽)라고 되어있고,
나. 이 건물 4층에 1946년 4월에 교회가 옮겨오고(동 39쪽),

다. 신광여자중학교는 1946년 8월에 설립인가를 받고 10월에 신입생을 모집하였는데 (신광여중 홈페이지 참조),

라. 교회와 학교가 서로 자기를 위하여 또는 공동으로 불하받았다는 주장으로 다툼이 있었고,

마. 1954년 11월 부터 시작되어 1955년 2월에는 서속회(원효로.용문동.효창동 등)를 중심으로 별도로 나아가 효창교회를 설립하였다.(동 54쪽)

바. 우리 청년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불하받은 내용이 어떻든 다투는 것이 은혜롭지 않으니 무조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아. 신광여자고등학교는 1946년 8월에 청파교회 최영휘 장로가 세운 학교로 연화봉여 학교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나 청파교회가 신광여자고등학교와 한 때(1946-1956)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던 연유로 잘못 알려져 있어서 인용되기도 합니다.

*41) 마포중앙교회 80년사 47쪽 사진과 사진설명 중.